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배가 해주며 새로 개발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무인기가 열병광장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비행하였다.

이어 조국에 바쳐진 전승세대의 값비싼 희생과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고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우리 국가, 위대한

승리자의 존엄과 기상이 빛발치는 용진장중한 《승리》상을 중심으로 청년학생들이 무도회를 펼치면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경축열병식의 서막을 펼치며 종합군악대의 군악레시가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기백넘친 혁명군가속에 일당백강군의 필승의 기개와 전투적랑만을 특색있고 재치있는 무기로 교묘 보여주었다.

이윽하여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 무적강군의 위엄 빛나는 공화국정예무력의 열

병부대들이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원수님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조선인민군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

부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 정치위원들, 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병간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상인 셰르게이 쇼이구대장과 리홍총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와 중국의 외교대표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2면으로 계속)

